진리 명화 창조

발행인 최 완 복
편집위원 박 성 래
편집장 곽 해 선
외대신문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우 영

# 외대학보

(1958. 3. 27. 제3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제298호
<주간>
1980년 4월 15일
매주 화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통권 1960년 7월 11일
통간 1955년 6월 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여문촛점

더이상 박제(剝製)된 자유속에서 안주할 수 없으며 더이상 질곡(桎梏) 속에 멸수 없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날개짓을 할 수 있으며, 지금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 최학장 뜻밖의 사임

## 11일 재단이사회에서 전격결정

### 조교무처장, 학장서리에 임명

### 오는 19일로 임기 만료

최완복 학장이 오는 4월19일로 공식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학장은 이를 지난10일 조수회의가 끝난 즈음에 발표했는데 비공식적으로 이 소식을 들은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전혀 의외의 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학장은 77년 4월30일 박술음 학장에 이어 본대학 제7대 학장으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봉직해 왔다. 최학장은 오는 19일로 임기 3년을 채우게 되는데 공식적인 사임은 재단정관에 따른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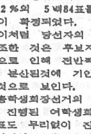
재단측에서는 최학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지난 4월7일 재단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여기에서 최학장의 사임과 학장서리에 조규철 교무처장을 임명할 것을 의결, 이에 대한 승인을 12일 문교부에 요청했고 문교부에서는 이를 16일 승인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재단 사무국장은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최학장의 사임을 임기만료와함께 그자신 올해 정년을 맞게되므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 관계자 재단이사회에 부의되어 의결되기 전에 문사당이 최학장의 사임의사에 대하여 『학원민주화를 위한 정상적인 학장선출의 경우는 5장 20조에 따른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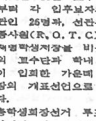
한편 최학장은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학원민주화라는 대명제에 입각하여 조속한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인 모두가 『희생』하는 시기에 저마다 물러나게 됨은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볼 때 자신 무척안한 처사로 인식된다 고 정직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학가의 동정에 대해서는 서서히를 찾으며 당연히 저이야 할 진통으로 본다며 이를 원만히민주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학원민주화의 첫 걸음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학장은 『학생들에게 악속한 것과 함께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보고 발표를 보류해 『의혹논란』을 없애고 조속한 시일내에 학생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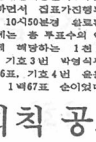
◇학생회장 이종석



◇학생회장 서경교양



◇부회장 이종석



◇부회장 노영자

## 총학생회장에 윤용근군(PA·3)

### 여학생회장에 서경교양(D·3)

### 투표율 72.6%, 참여 높아

○……지난 15일 실시된 본대학 총학생회장단 및 여학생회장선거에서 총……○
○……학생회장에 윤용근(PA·3) 부회장에 심방국군(C·3) 그리고 여……○
○……학생회장에 서경교양(D·3)이 선출되었다. 본대학은 이로써 다시……○
○……6년만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구성하는 총학생회의 출발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번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는 총유권자 4,949……○
○……명중 3,592명이 투표하여 72.6%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여학……○
○……생회장선거는 총 유권자 526명중 412명이 투표에 참가하는 78.3%……○
○……의 가록적인 투표율을 나타냈다. 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된 윤……○
○……용근·심방국군은 총 584표를 얻어 총517표를 얻은 박노식·공병……○
○……설후보를 67표의 근소한 차로 앞섰고, 여학생회장에 선출된 서경……○
○……교양은 130표를 얻은 김영주후보를 123표 앞지르는 253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되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날인 16일 오전……○
○……9시 당선자를 공고했다.

개표는 15일 오후 8시50분부터 각 입후보자의 개표참관인 26명과, 선관위원, 개표종사원(R, O, T, C) 그리고 서울대학생처장실 비롯한 5명의 교수단과 학내 보도진들이 입회한 가운데 선관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총학생회장선거 투표함을개봉하면서 김표가진행되어 오후 10시50분경 완료된 1차 집계는 총 투표수의 6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1백28표를 기호3번 박영식후보 1백76표, 기호4번 윤용근후보의 1백67표 순이었다.

이어 계속된 최종 집계는 자정이 지나 발해졌는데 윤용근·심방국조가 득표율 16·2%의 5백84표를얻어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제껏 당선자의 득표율이 제조한 것은 투보자들의 난립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표가 분산된것에 기인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장선거의 개표에앞서 선명된 여학생회장선거의 개표도 투리없이 진행 되어 25분만인 오후 9시 15분에 개표절차가 종결되었다.

이번 개표를에 나타난 부표표는 총학생회장의경우 총 투표수의 3. 5%에 해당하는 1백26표였으며 여학생회장선거의 개표에서는 27표의 무효표가 나와 6. 4%를나타냈다. 이외에도 각 5, 2표의분실표가 발생했으나 당락 (當落) 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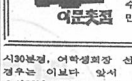
이날 입회한 선거 참관인 26명을 개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개표과정상에발생하는 제반문제의결정을 선관위에 위임할 것과 선거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무효표에 대한 유·무 판정은 선관위원의 3분의 2의 의결에 따를 것』을 서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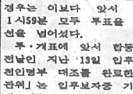
한편 입후보자들도 14일 『어노인주보자가비록 제조한 득표율 당선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는 당사자를 복속 지원하며, 선거후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합의한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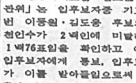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투표도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으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던 투표율도 높은수준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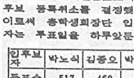
이날 총학생회장선거는 3개대학 · 호주 · 자유중국으로 파견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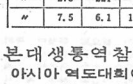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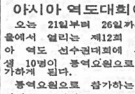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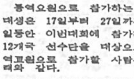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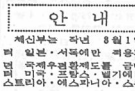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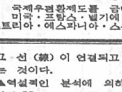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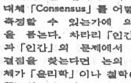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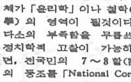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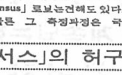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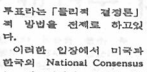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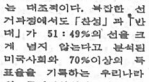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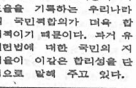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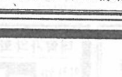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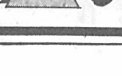














시30분경, 여학생회장 선거의 정주는 이보다 앞서 오후 1시59분 모두 투표율 50% 선을 넘어섰다.

투·개표에 앞서 함동유세 전날인 지난 13일 입후보자 전인명부 배조를 완료한 「선관위」는 입후보자중 기호11번 이동원·김도웅 후보의추천인수가 2백인에 미달하는 1백76표임을 확인하고 이를 입후보자에게 통보, 입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입후보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는 투표일을 하루앞둔 14일 10명으로 줄어들었다.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확정된 윤용근군은 『희선을 다했음니다. 반드시 희고자하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깨고자 하는 사람이 희대 앞을 분입니다』 라고 첫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자신이 제시한 공약의 실행에 최선을다할것이며 총학생회의 일원구성에 있어서도 능력 위주로 널 의명인을 참여시킬 것임을 다짐했다.

각 입후보자의 득표상황과 득표율은 별표(別表) 와 같다.

<선거분석 3면>

| 입후보자 | 박노식 | 김종오 | 박영식 | 이자세 | 윤용근 | 정급조 | 이정한 |
|---|---|---|---|---|---|---|---|
| 득표수 | 517 | 460 | 497 | 151 | 584 | 196 | 104 |
| (%) 득표율 | 14.2 | 12.8 | 13.7 | 4.1 | 16.2 | 5.4 | 2.8 |
| 〃 | 이홍은 | 손장익 | 최종웅 | 부 표 | 서경교 | 김영주 | 부 표 |
| 〃 | 275 | 221 | 456 | 126 | 253 | 130 | 27 |
| 〃 | 7.5 | 6.1 | 13.7 | 3.5 | 61.8 | 31.8 | 6.4 |

<입후보자 기호순>

### 본대생통역참가
### 아시아 역도대회에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서울에서 열리는 제12회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에 본대생 10명이 통역요원으로 참가하게 됐다.

통역요원으로 참가하는 본대생은 17일부터 27일까지11일동안 이번대회에 참가하는 12개국 선수단을 대상으로통역요원으로 참가할 사람은아래와 같다.

안 내

체신부는 작년 8월1일부터 일본·서독에만 적용되었던 국제우편물제도를 금년부터 미국·프랑스·벨기에·오스트리아·에스파니아·스위스 등 10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우편물 제도의 확대실시로 우편요금은 종전 보다 평균 30%정도 인상된다.



▲총학생회장 탄생
—학원 자율화의 진입로 (進一步)

▲회장단 사임한다고.
—이거야 말로 아닌밤중에 홍두깨.

▲ 「51:49」(%)가 수치상으로 볼때 「National Consensus」에 한치도 접근하지못하면서도 그 정당성을 부인할 자 (者) 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다수결의 원리」라는 또다른 민주주의의 모델을 찾는다면 논의 자체가 「윤리학」이나 철학(哲學)의 영역이 필요이다. 다소의 부족함을 무릅쓰고 정치학적 고찰이 가능하다면, 전국민의 7~8할(割)의 동조를 「National Consensus」로보는견해도 있다. 물론 그 측정과정은 국민투표라는 「물리적 절차」를 거쳐 방법을 전제로 하고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의 National Consensus는 대조적이다. 복잡한 선거과정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51:49%의 선을 크게 넘지 않는다고 분석된 미국사회와 70%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찌합의가 대략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과거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이같은 합리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 「51:49」(%)가 수치상으로 볼때 「National Consensus」에 한치도접근하지못하면서도 그 정당성을 부인할 자 (者) 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다수결의 원리」라는 또다른 민주주의의 모델을 찾는다면 논의 자체가 「윤리학」이나 철학(哲學)의 영역이 필요이다. 다소의 부족함을 무릅쓰고 정치학적 고찰이 가능하다면, 전국민의 7~8할(割)의 동조를 「National Consensus」로보는견해도 있다. 물론 그 측정과정은 국민투표라는 「물리적 절차」를 거쳐 방법을 전제로 하고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의 National Consensus는 대조적이다. 복잡한 선거과정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51:49%의 선을 크게 넘지 않는다고 분석된 미국사회와 70%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찌합의가 대략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과거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이같은 합리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 「51:49」(%)가 수치상으로 볼때 「National Consensus」에 한치도접근하지못하면서도 그 정당성을 부인할 자 (者) 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다수결의 원리」라는 또다른 민주주의의 모델을 찾는다면 논의 자체가 「윤리학」이나 철학(哲學)의 영역이 필요이다. 다소의 부족함을 무릅쓰고 정치학적 고찰이 가능하다면, 전국민의 7~8할(割)의 동조를 「National Consensus」로보는견해도 있다. 물론 그 측정과정은 국민투표라는 「물리적 절차」를 거쳐 방법을 전제로 하고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의 National Consensus는 대조적이다. 복잡한 선거과정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51:49%의 선을 크게 넘지 않는다고 분석된 미국사회와 70%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찌합의가 대략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과거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이같은 합리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 「컨센서스」의 허구(虛構)

▲학자은 의미를 가지고도 그것이 지배층의 이익을 보기의 연라를 뒷받침을 하게 그 여부의의식 (虛偽意識) 이 드러난다. 영문「National Consensus」에 관한 우리말의 다양한 풀이에서 그 예(例)를 발견할 수 있다. 「국민찌 총화」라는 말이 결여찌인 해석으로 지배된 바 있었다. 그후에 「국민찌 합의」라는 귀에 익숙한 말이 「총화」에 대치되기도했다. 기상도 (氣象圖) 가 아직영하권 (零下圈) 이라는 현재는 각 개인에 따라 「국민찌단합」이니, 「국민찌 의지」라는 표현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해석이야 어떻든간에 「Consensus」가 부단히 강조되어 온것만은 사실이고, 또 강조되어 온만큼 「Consensus」가 필요한 상황에 놓 찌면해 왔다는 반증 (反證) 이기도하다. 그것이 「물개야 산다니」는 경구 (警句) 찌 표현에서부터 「의지」(意志)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개인의 문제에까지 생하는 제반문제의결정을 선관위에 위임할 것과 선거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무효표에 대한 유·무 판정은 선관위원의 3분의 2의 의결에 따를 것』을 서약했다.

한편 입후보자들도 14일 『어노인주보자가비록 제조한 득표율 당선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는 당사자를 복속 지원하며, 선거후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합의한 바 있었다.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투표도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으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던 투표율도 높은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날 총학생회장선거는 3개대학 · 호주 · 자유중국으로 파견을할 계획이다.























































### 총학생회칙 공포 늦어져
### 총학생회 출범후에야 가능

15일 총학생회장 선거가 끝남에 따라 총학생회가 조만간 발족하게 되어 있으나 총학생회구성과 활동에 근간이 되는 총학생회칙이 아직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총학생회의 조기출범이라는 대전제하에 총학생가 총학생회칙 공포에 앞서 출범한다는 데, 총학생회칙이 없이 선거를 치룬데 이어 역시 변칙적인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1일부터 총학생회칙초안을 마련해왔던 임시학생회가 발린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보면 지난 4월1일 「총학생회칙 준비분과위원회」를 발족, 6일 초안을 작성한 뒤 8일 공청회를 개최, 이 초안을 재검토, 수정한 뒤 선거전날인 14일 이를 공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던 7, 8일 양일간 본보생들의 선거권문제가 발생, 결국 공청회를 개최할수 없게 되었다.

한편 새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는 임시 학생회가 관장해온 총학생회칙준비작업을 인수받아 가능한 빠른 시일내 공청회를 개최하고 총학생회칙을 공포한뒤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 제적확정자 130명

교무처에서는 지난 9일발표한 제적예정자 154명 가운데 130명만을 제적확정자로 발표했다.

당초 발표된 제적예정자중 24명은 최종 졸업이후 추가로 졸업한 학생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적 변동 인원은 다음과 같다.

알 림

제1회 교양특강

동남아 종동제국 문화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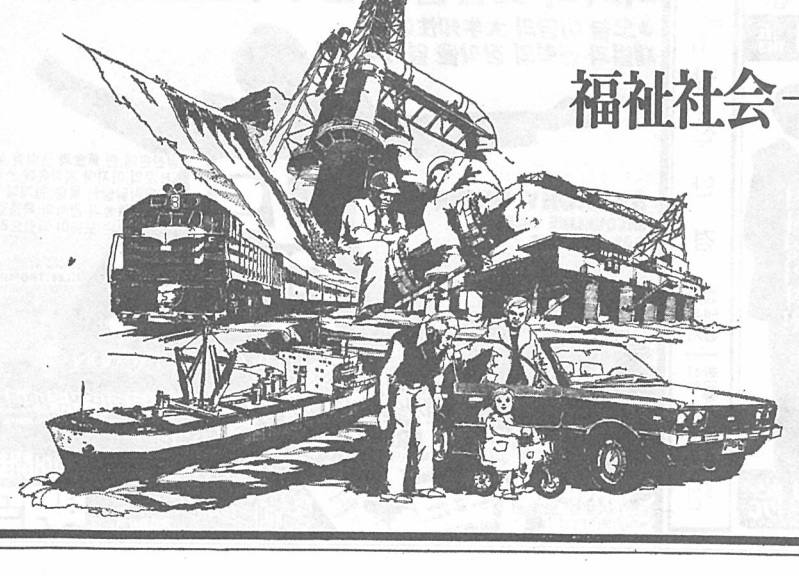
본외대학교는 본대학 교양학부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교양특강을 마련했읍니다. 세계 앙대진영의 식민지적 지배가 그 고비를 넘기고 제3세기가 새로운 중요성을 띠게 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더 이들의문화이해가 필수적 교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교양 특강은 외대만이 가질수 있는 여러 지역 문화의 전문 교수들이 바학과 학생들을 게도하고 대화를 기회를 마련하여 권공제도를 보완하고 외대 특유의 학풍정비에 한푸를 차지할 좋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인이 마련 할수 있는 「우니크」한 이번 교양특강에 어러의대인의 적극참여를 바랍니다.

▲4월2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후3시부터 1시간30분동안 사회과학관 206호에서 아래와 같이 강연합니다.

21일 : 태국편 (강사 · 최창성교수)
22일 : 터어키편 (강사 · 서재민교수)
23일 : 이란편 (강사 · 김정위교수)
24일 : 아랍편 (강사 · 김용선교수)
25일 : 월남편 (강사 · 김기태교수)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화

福祉社会—우리 모두의 所望입니다



重工業 발전으로
福祉社会 건설,
그것은 우리의 信念입니다.

現代는 国内外에서
誠実하게 땀흘리며
우리 모두의 所望을
하나씩 実現해 나가고 있읍니다.

蛾山財団은 金北 井邑, 全南 宝城, 江原 鉄原, 忠南 保寧, 慶北 盈德등 의료 취약지역에 最新施設을 갖춘 5個 綜合病院을 建立, 開院하고 農漁民의 診療는 물론 地方医療機関의 발전을 위해 献身的으로 奉仕하고 있읍니다.

現代

# 한국 인플레이션을 분석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한국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탈 흔들어 놓을 듯한 기세로 밀려 …○
○…·오고 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요인에 …○
○…·대해 흔과수요인플레니니, 비 …○
○…·용상승인플레니니 하는 여러 주장이 있었 …○
○…·다. 본고에서는 경제질서를 하나의 유기 …○
○…·체로 파악, 그 구조적 모순에 촛점을맞 …○
○…·추어 한국경제의 현재를 분석해 본다. …○

<필자주>

## 1. 머릿말

고도 성장을 구가해오면서 한국 경제가 70년대 말부터 인플레이션이라는 커다란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다. 공산품, 유류가, 연탄값, 농수산물, 전기세등 모든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고 있다. 보통서민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큰 골칫거리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누적된 구조적 모순의 현재화 (顯在化) 로 파악하려고 하며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기본적 요인을 분석함은 한국경제의 분석에 있어서 대단히 의의를 갖는다할 것이다.

단, 인플레이션이란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복잡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70년대가 채 결산되지 않은 지금, 정확히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글은 하나의 시론 (試論) 에 불과함을 미리 밝혀 둔다.

## 2. 한국 인플레이션의 요인분석

### (1)수요의 측면

그간의 한국 경제 정책은 근대화의 장에 요인을 제인지 유체 (遺胎) 의 미청산이라는 역사적 인식을 미처 탈피한 현상적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부연하면 근대화의 장애요인을 후진국 일반의 편상적 상황, 즉 자본과 기술 부족이라는 가정에서출발하여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위해서는 외화가 필요, 외화를 획득키 위해서는 수출에 드는 비일 정도로 투자가 의지 없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출 주도형의 고도 성장 정책은 국내 저축에 기반을맞추지 못하고 통화증발과 외자 의존하여 추진되어왔던 것이다.

<표Ⅰ>실물 (實物) 증가율

| 년 (年) | 분 기 | 전년동기(대비) 실상 증가율(1) | 전년동기 대비 통화량 증가율(2) |
|---|---|---|---|
| 77 | 1·4분기 | 21.9 | 32.3 |
| | 2·4분기 | 18.4 | 39.2 |
| | 3·4분기 | 21.8 | 50.7 |
| | 4·4분기 | 23.7 | 40.7 |
| 78 | 1·4분기 | 30.7 | 35.4 |
| | 2·4분기 | 34.4 | 32.1 |
| | 3·4분기 | 31.1 | 17.2 |
| | 4·4분기 | 23.4 | 24.9 |

(자료 : 1) 79.3.27 동아일보
2) 전경련 한국통계연감

<표Ⅰ>에서보이는바와같이 통화량 증가율실물 (實物) 증가률 혈선초과하고있다. 이 초과분이 초과 수요 면에서도 수출 지원 금융 증가율은 89.3%였으나 수출은 겨우 17.4% 증가하였다.

79년에는 5조6,649 억원으로 4조9,134 억원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고 있다. 이 갭(gap)은 한국 은행 차입금과 외자에 의해 충당되었기 때문에 통화 팽창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②민간 부문

원래 한국의 기업은 재무 구조가 취약하여 강력한 국가 금융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있다. 78년 제조업 총투자의 74%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에 투입되었다. 원래 중화학이란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기때문에 생산개시시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투자증가로 의어 통화 팽창의 요인이된다.

즉, 전설 과정에서의 방대한 자금 살포는 승수적 소득 증가를 결과하는 반면 물량 공급은 상당시일 경과 후에 비로소 일어나기 때문에 여타산업에 초과수요 압력을 주게됨으로써 물가 상승을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저축률 내외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 주도형 정책으로 기업들은 수출 금융에 의존하여 자신을 보존·확대시켜왔다. 그런데 수출 금융 대출 금리는 1980년 1·21 금리 인상 조치이전에 연 9%로 일반 금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특혜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 특혜적인 수출 금융은 수출반을 위해 사용되지않은 것이다. 78년 수출 지원 금융 증가율은 55.7% 였으나 수출 증가율은 불과27%였으며 79년 1·4분기 통화량 증가율 비교

(단위%)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78년 | 35.4 | 32.1 | 17.2 | 24.9 |
| 79년 | 32.3 | 39.2 | 50.7 | 40.7 |

실히 필요로 하였다. 특히 수출 주도형 정책으로 기업들은 수출 금융에 의존하여 자신을 보존·확대시켜왔다. 그런데 수출 금융 대출 금리는 1980년 1·21 금리 인상 조치이전에 연 9%로 일반 금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특혜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 특혜적인 수출 금융은 수출반을 위해 사용되지않은 것이다. 78년 수출 지원 금융 증가율은 55.7% 였으나 수출 증가율은 불과27%였으며 79년 1·4분기 통화량 증가율 비교

(단위%)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78년 | 35.4 | 32.1 | 17.2 | 24.9 |
| 79년 | 32.3 | 39.2 | 50.7 | 40.7 |

(자료 : 1) 79.3.27 동아일보
2) 전경련 한국통계연감

<표Ⅰ>에서보이는바와같이 통화량 증가율실물 (實物) 증가률 혈선초과하고있다. 이 초과분이 초과 수요 면에서도 수출 지원 금융 증가율은 89.3%였으나 수출은 겨우 17.4% 증가하였다.

즉 수출 금융의 대부분이 비생산적 부문인 부동산 투기, 사채 업이로 유용되어 통화증발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수출 금융을 포함한 민간부문 전체 통화 공급은 78년중 전년의 2배인 2조 2,933억원이었고 저축성 예금에 의한 통화 환수규모 또는 전년의 1.4배인 1조 3,952억원이었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순 통화 증가율은 전년의 8배인 8,981억원이나 되어 본화 증발 요인 (內貨) 중에서 공급하는 자금하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결국 통화팽창을 결과하는 것이다.

③해외부문

최근 수년동안 우리나라의 대외균형은 흑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해외부문으로부터는 오히려 통화 환수 (蓮收) 로 되어왔으나 수출지원금융의 유동 (流用) 이나 현금차관 (現金借款) 의 허용등에 의한 통화팽창 요인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더 큰곳에 있다. 70년대 초기부터 일었던 중동 건설붐이 여기에 가세한다. 76년 경우 해외건설 붐에의 참여 유동성은 총통화의 40%에 상당하는 6,561억원으로 통화팽창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다.

### (2)공급의 측면

①내수용 물자 부족

자원경제란 국제 무역을 보조적인 것으로 하고 국내적으로 상호 균형지향적인 분업에 의해 국내에서 완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형 경제는 처음부터 자립경제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따라서 이 원자지간 (遠隔地間) 상업에 의해 먹게된 국제 분업으로 의존하는 수출품을 놓이는 국민 경제 구조를 결과하였다. 이것은 곧 외국 독점 자본의 재생산 과정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 경제는 국내시장에 기반을 갖지못하고 해외와 연관을 가지면서 성장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내수 (內需) 공급을 압박하는 중소 기업은 물론하거나나 더기업의 하청 기업화하지않을 수 없었다. 무리한 수출 강행과 중소 기업 희생은 필연적으로 내수부문 생산의 위축을 가져와 국내 공급의 절대 부족을 결과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제조업 생산의 40%이상이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78년의 내구 소비재를 둘러 련상과 증동 건설 붐에 따른 건축 자재 파동은 이러한 내수공급 부족 현상을 실증해준다 할 것이다.

④해외 원자재 원가 상승

해외본원에 관련있는 수출 주도형은 처음부터 국내 자원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다. 농업은 차치하고라도 광업부문도 최근 하고 있다. 한국의 광업은 1953~61년에 연평균 17.5%의 성장율을 보였는데 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연평균 12.3%, 다시 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연평균 4.4%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것은 비교 생산비설에 입각한 논리에서 수선 산 수입 원자재를 끌어오고 여기에서 다시 국내 광업의 침체라는 악순환에서 초래된 것이다.

또한 자본및 기술을 공여한 외국자본의 요인에 따른 원재료 수입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실례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는 80%이상의 원재료를 투자국에서 조달케 하는 것이다.

참고로 주요 원재료의 수입의존도를보면 원유 100% 고철 85.9%, 원당 100%, 원목72.8%, 원면 100%, 원모 100%생고무 100%, 유지 100%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의 산업 1976)이외에 구리·집중이 일어나 독점화한다. 그런데 우리나라특혜업체는 그 성립 단초 (緖初)가 귀속재산 불하, 외국 원조, 외국 차관, 금융 특혜 지원인 점에 자본주의의 성격, 또 외국독점 자본의 기생하는 매판적 성격을 더면서 자체확장을 계속해왔다. 그리하여 78년 10대 재벌의 부가가치 총액은 국내 총생산(GDP)의 10.9%를 차지할 정도로 팽창하였다. 그리고 이 독과점업체들은 인플레이션하의 가격경기를 누리고있다. 77년 상반기 대비 78년 상반기 매출 신장율은 36.6%이고 순익 증가율은 68.6%로 인플레 경기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높은 시장 점유율에서 오는 독점이며, 희소가치 원하로 말미암은 실질 임금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의해 파멸된많은 중소 기업이 인수 등에서 오는 것이다. 그밖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특혜 과점 유제 품목을 계속해제하여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일반대중의 소생활에 더저부터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④임금 원가 상승 압박론-비판

임금이 원가 상승을 압박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인플레이션시 임금 억제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임금이 오르면 즉시 제품가격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래 우리나라 수출 경쟁은 국제 경쟁력 약화로 「덤핑」수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서비스에서는 노동력부분의 희생으로 되는 저임 공정제품을 써야만했다. 그러의 지속히 폭은 원가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임금인상에의한 공산품가격상승압력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더부분 기업부분에서 흡수되었는 것이다.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실질임금 10% 인상이 공산품가격 상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 하였다. (동아일보, 79.3.13)더구나 노동상권이 묵어있는 상황에서임금원가 상승 압박론은 임금을 억제하여 최대한 이윤을 획득하겠다는 자본의 기만적 논리에 본명한 것이다.

## 3. 인플레이션의 영향

인플레이션은 국민 경제 구조에 또 계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인플레이션시 제상품간의 가격 불균에는 시차가 있다.

그중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 (즉, 임금) 이 가장 한반히 증가하는는 경향이 있다.

<표Ⅱ>임금및 생계비비교

(단위 : 원)

| | 임 금 | 가구당월평균 소비 지출액 |
|---|---|---|
| 70년 | 17,831 | 29,950 |
| 71 | 20,581 | 34,970 |
| 72 | 24,179 | 38,560 |
| 73 | 26,954 | 41,490 |
| 74 | 32,542 | 50,000 |
| 75 | 46,019 | 65,310 |
| 76 | 62,362 | 81,460 |
| 77 | 82,355 | 95,400 |
| 78 | 87,738 | 127,710 |

(자료 : 노총 경제기획원)

<표Ⅱ>에서보이는 바와같이 임금이 생계비를 능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격차는 갈수록 커져갔다. 즉 임금으로 구입하는 상품(임금재) 들의 몫커를 임금이 따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임금 생활자의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피용자 (被雇傭) 보수율 (피용자 보수/생산액) 을 보면 보다 확실해진다. 피용자 보수율은 71년 39.0, 72년 38.8, 73년 37.2, 74년/ 36.8로 점점 감소 추세에있으며 임금생활자의 상대적 빈곤을 더 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농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저임금 유지를 위한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은 거의 묵어 있는데 비료값 농기구값 등의 농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시 더자본가와 은행은 안정된 외국화폐로 바꾸거나 투기등의 방위즈치를 취할 수 있으나 소장기업과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보호막없이 앞아서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시 필요이상의 통화발행에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본의 코스트를 낮춘다.

또 재정 정책의 중심인 공공투자를통해 공업을지, 항만, 도로등 산업기반을 조성해준다는 것은 대기업에 비용을 절약시키고 또 더기업에 그공사를 맡주 (몰 찬) 하기 때문에 높은 이윤을 보장해주는 결과가된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인플레이션은 결국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은 비생산적 투기를 조장한다. 인플레이션시의 큰 가격변동의 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부동산투기, 건축자재 매점매석, 주식투기, 환투기 등이 빈발한다. 이것은 진전한 투자활동을 저해하여 국민 경제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나타난다.

## 4.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인플레이션이 수출주도형의 고도성장정책에서의 누적된 모순의 표현이며, 이것은 역설적으로 고도성장과정의 인플레이션의 심화과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국민의 희생과정이었던 것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의 원인들이 계속적으로 편성에 참여하여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자기완결적 자립경제체제로 전환시켜야할 것이다. 아무튼 70년대를 보내고 80년대에 들어섰지 지금, 우리는 70년대를 조용히 반성하고 보다 살기좋은 80년대를 위해 보다능동적이고 또 논리적 인식하에서의 현실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소 준 섭
<등국어과 · 2>

## 사설

### 학원자율 고수가 지상과제

#### —총학생회 출범에 앞서

미네르바의 부엉이 날개짓이 시작하는 이 봄 4월에 우리 외대는 대학 역사의 마말한 거보 (巨步) 를 내딛었다.

학원의 민주화와 학생활동의 자율화라는 대명제아래 한달림 가슴을 뜨겁게 합친 우리의 노력은 오늘 다시 우리의 손에 의한 총학생회장의 탄생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제까지 총학생회의 부활을 위해 바쳐온 우리의 노력은 이번 선거에서 근자에 총학생회장선거를 치른 어느 대학에 못지않게 높은 투표율과 조용한 속에서는 스스로의 반대급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돌아켜 보건데 오늘의 결실에 이르기까지 학내의 의 상황은 일장 (一場) 저변의 「파노라마」에 다름 아니었다.

방학중인 지난 2월부터 우리의 노력은 구체화의 기 시작했다. 긴급조치 위반의 멍에를 벗은 학우들의 복직, 작중 학생회의단체, 학내자율화자문위원의 결동, 공청회와 교수·학생간의 대화, 학생들의 동확급인하등구를 기화로 한 제단 문제의 부각, 신입 학생간을 정점으로 한 학생의사참구의 일원화 이어 등록금문제의 타결, 입시학생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작업진행등의 본코넘 유관문제 타결—이 모든 것이 개강이후 45일간에 이르는 지금까지 본부의 1연 머릿기사를 송작하는 열기를 모으며 장식했다.

오늘 총학생회장이 탄생된 이 마당에서 우리는 잠시 숙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흐리를 들고 이어진 학원 년력과정의 위인에는 개인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복지 들은 사람들의 피땀이 있다. 그들은 아무런 댓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대학인으로서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않은 그들에게 던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대학의 새역사를 열치는 초석 (礎石) 이 되었다는 긍지일 것이다. 삼가 그들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를 표한다.

이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동안에 간간이 빚어진 부분별하고 양식없는 이들의 소행이다. 더 이상의 구구한 서술은 필요가 없겠으나 차제에 그들의 반성과 새로운 정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제 남은 것은 총학생회의 출범이다. 곧 제정될 총학생회칙에따라 학생회장은 전정 의미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참신한 인재를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학교 행정실무등 제반 사정에 익숙치 않으므로 그에대해 관계당국자나 교수, 학생에게 종분한 조언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교수 역시 이제부터는 총학생회장단에게 감시와 독려를 하기보다 앞아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 독선에 희생과 인종 (忍從) 의 가사방지를 겪어온 사람들 누구나가 올해의 봄을 진정한 계절로 맞기위해 심상 (心狀) 한 가슴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그럼에도 보듯이 있는 지금, 북풍한설 (北風寒雪) 이 몰게구름에 쫓승하여 우리학원과 사회의 하늘을 잊으려 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정부 고위당국자의 정책는 우리의 노력을 도리어 퇴색시키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긴급조치 9호와 학원사찰의 악령이 아직 떠나지 않은 이때에 학원소요의 계속 또는 확대시켜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는 얘기에 깊은 의혹과 배반감을금할 수 없다. 대학의 민주화는 대학인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은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이는 총학생회 역시 고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욕망(欲望)

욕망은 평범한 이름에게 공통된 바음바탕이다. 그대 상이 유명이든 무명이든 욕망자체를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애매한 일이 되기 쉽다. 다만 사람들은 각자의 운리와 양심이 명하는 판단에 따라 욕망의 대상을 결정한다.

물론 하동의 욕망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겠지만, 공국적으로는 그러나 밤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형식못한 이름의 바람일런지도 모르겠다. 하기는 이미 가진 사람들이 욕갈은 대상을 갖고 싶어하는 이름에대해서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다는 얘기가 논리적인 귀결이다. 허나 막히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건 잘알려진 얘기다.

▲관료 사람들은 통전씨상 (統帥世上) 에 하수설한 시절이 끝이 지 않는 것도 단지 이 욕망이 빚어내는 것이라고 단정짓기에 인색하지않다.

그렇다고해서 돌는 입장에 있는 이가 말하는 이의 행복을 반론한다면 자신있게 욕망을 다스려왔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것 같다. 오히려 갓 지못한 이들에게 그런 날은 이미 가졌거나 가진 앙 (望) 사는 사람들의공통 지사 (功望辭) 정도로 밖에 생각되지않기 일쑤이다. 전연 욕망없는 이의 경우는 논의 (論外) 로 하고 말이다.

▲어린아이의 욕망을 우리는 동심 (童心) 이라고 부르며 찌년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그런 동심의 입자원력 시간대를 지나왔지, 지금에 와서 그때처럼 살지 돌아보지 않는 욕망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타인에게 불행을 낳기 십상이다.

차라리 그 경우엔 욕망을 고집한 자스스로가 자초한 불행이므로 갓수 (甘受) 할 명분을 찾기도 그리 어렵지않다. 정작 불행한 것은, 욕망과 그 주변에 대한 불유체한 경험과 선입견에서 끌리다못해서사 (辭事) 를 「조리감」에 넣어 끝내서버 보는 마음이다. 바꾸고 보면 끝나 「인간적」이다. 또 본능적일 수도 있겠다. 모두 돌릴 마음이라고 볼 수는없지 모르다. 분명한 것은 양 자 모두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요즘 사람들은 박연하나마 「인간적」이라는 말에 항수 (鄕愁) 이상 할수를 느끼는 모양이다. 공해로 더럽혀진 도시의 밤하늘에 간간이 빛나는 별 반자나 보기 어렵고 저속성없는 것이라 해도 숨쉬는 것에 의한 것이라면 그럴듯하다. 결국 이것도 욕망이다. 다만 확실한 건, 적어도 그런 욕망이라면 스스로와 타인을 불행하지 않게 할 거라는 믿음이 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곽>

6月初로 臨迫한
貿易士 시험 대비 特講
商工部傘下 開設로서 貿易研修專門機關인 社團法人 韓國貿易研修院 (TRAMA) 에서는 第5回 貿易士試驗對策을 위한 特講을 다음과 같이 實施합니다.
1. 登錄接受
(1)接受期間 : 4월14일~4월25일
(2)接受場所 : 事務局(261)7371 · 7372
2. 教育事項
(1)期間 : 1개월과정
(2)時間 : 15시~18시 (月~金)
(3)開講 : 4월28일 月曜日 15시
3. 科 目
貿易大來法 · 外換管理法 · 關稅法 · 貿易實務 · 信用狀 · 貿易英語
4. 講座主要內容
貿易士試驗第1回~4回까지의問題集에 의한 試驗出題委員 專門人士의 講義
5. 講師陣
貿易士 試驗出題委員 專門人士
6. 特 典
1. 무료 주차 (2대)
2. 貿易士試驗 合格者에게 本院 專任講師 無料指導實施
韓國貿易研修院
(3)7371~2

대학가의 화제
안 장 환 장편소설
대학은 머리로 걸어라
知的인 대학생활을 위한 영원한 인생론
이기성과 낭만의 상징 대학의 캠퍼스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대학의 현실과 이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진정한 대학생활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지성과 낭만의 메시지
인형의 도시
사랑의 마술사 안장환이 그리는 바다같이 깊고 넓어서 더욱 외로운 도시의 초상
知的인 삶의 지침서
신국판 1,900원
한 마 음 75-0849 988-5572

大學生을 爲한
英語·獨語·日語
開講 ⇨5月1日
留學英語 高級英作 英文解釋①②③ TOEFL TIME AFKN(軍신반있음) 三位一体 · DIGEST English 900 会話 민병철生活英語 必須英語 Word power 基礎会話, TOEFL 就職英語 美人会話SCREEN 美語会話 Vocabulary10,000 (20,000) TOEFL 留學英語 大学編入英語 成文綜合英語 英作文①② 留學国史 国民倫理 日語 (初·中·高級)会話班 独逸語文法完成, 独文解釋
院長 : 文 昌 淳

時事英語學院

경사경연 따라시켜 광 신 안 경 ▲교도급시 ▲교내장용시 광교중간 안과1층(2·3·4층) 5000

바다의 黃昏을 보면 누구든 詩人이 된다.
●오늘 이땅의 大学知性에게
재벌과 권력의 장막을 열어재친다.

## □취재기자 방담

#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기까지

전 외대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15일 실시된 총선거는 72.6% (어학생회장 선거 78.3%) 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투·개표과정에서도 공정한 분위기를 보여 성숙한 민주역량을 새삼 과시하기도 했는데, 본보는 그동안 선거과정을 지켜본 일선 취재기자들의 방담을 마련, 총학생회장이 선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우선 선거가 무사히 끝나게되어 다행스럽군. 6년만에 시행되는 것이라 사실 모두들 낯선 상황이었을텐데 준비측도, 유권자도 커다란 오류없이 잘 해주었어. 물론 몇가지 시정해야할 문제점도 노정되었으나 타대학에 비해 참여도도 높았고, 입후보자들도페어플레이를 한 점등으로보아 대학내에서의 민주화작업은 적어도 외대에서만큼은 제대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되는군.

그러면 선관위 구성 당시부터 당선자 발표까지를취재하며 기자가 지켜본 선거를 이야기하고 반성해보도록 하지.

—선관위의 구성은 각 과 회장단으로 구성된 임시학생회의 한분파에서 출발. 정식으로 9인의 선관위원단을 구성했는데 너무 적은 인원으로 출발해서 끝까지 몇사람이 고군분투했던것 같아.

선관위 구성당시의 또하나의 진통은 등록금 문제였던것 같아. 우선 총학생회의 구성이 선행되어야한다는 판단에서 학내 제반문제—이미 타대학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는 뒤로 밀려져야 했고, 그래서 등록금문제도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보도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으로 학내문제를 모두 무마하려는 것인줄오해했던 모양이야.

—선거시행세칙에 대해서도 시비가 있었어. 학보에 시행세칙이 발표된 후 임시학생회 자체내에서 세칙의 인준과정문제로 그것이 가세칙(假細則)이다, 아니다의 논란이 있어, 그것이 가세칙임을 공고해달라고 학보사에 찾아와서 잠시 얼토당토않은 곤궁에 빠지기도 했지.

—세칙이 조금 급하게 만들어졌던 것이 사실인것 같아. 무사히 대사(大事)를 치루긴 했지만.

—세칙상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학칙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세칙이 나왔다는 점이야. 즉, 모법(母法) 도없이 자법(子法)이 탄생한 셈이지. 때문에 분교생에 대한 선거권문제로 곤혹을 치루기로 했지. 세칙에는 분교생에게 선거권이없는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분교생 일부와 분교생은「같은 외대인」임을 내세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했고 '그에대해 선관위측은 분교와의「모든 행정상의 분리」이유로 줄 수 없음을 주장했지.

—이번 분교문제는 심각했어. 선관위사무실에 들어가 입후보자의 추천인명부와 선거인명부를 빼앗아갈 때는 정말 아찔하더군. 1차합동유세때의 농성도 자칫하면 분교생과 본교생의 대립으로 확대될뻔 했어.

—이번 선거는 ROTC가 중요한 한 몫을 했던것같아. 1차 유세때 분교의농성으로부터 입후보자를 보호하는 역할에서 투표당일 보안유지와 개표당시의 참관인 역할에 이르기까지.

역시 대학내에서도 군부(軍部)의 힘은 막강(?)한 것임을 실감케했어. (웃음)

—지금 생각하니 분교의 항의 방법도 반성할 점이없지 않은것 같아, 대학생의 폭력사태가 자꾸 지상에보도되니 그영향도 적지 않은것같고.

분교생의 선거권취득문제는 선관위측과학장, 임시학생회대표, 분교 교학처장, 분교측 대표가 모여<분교는 별도로 학생회를 구성 본교 학생회와 협의관계를 유지한다>는 합의점을 찾았는데 분교측이 이를 거부, 분교 대표들의 대표성 문제부터 모호하게 만들었지.

—일설에는 극소수의 본교학생이 선거와 관련하여분교선거권 문제를 배후조종했다는 풍문이있어, 듣는이로 하여금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지. 부디 그것이 단지 떠도는 말이었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분교문제는 분교생 자신도, 본교생도 학교 운영체계를 확실히 알지못했던데서 비롯된것 같아. 그러나 분교문제가 제기된데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아.

—선거유세는 두차례의 합동유세만을 허락하고 개별적인 유인물 배포나 수업중의 개별유세를금했는데,

유세때 입후보자들은 학생들에게 어필할수 있도록 애쓴 흔적이 역력했어. 그중 몇명은 공감대를형성, 많은 지지박수를 받기도했지. 전형적인 이념형공약과 외대의 이익에관한 구체적 공약등이 호응을 얻었는데 그중에 본대학의 국립대학화에대한 공약은 얼핏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들리는데 의외로 많은관심을 불러일으켰던것 같아.

—어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유세당시엔 정말 비관적이었어. 1차 유세때엔 선거권자의 약 1할쯤만이 참석하는 정도였고, 2차때엔 아예 양측 선거참모들만 자리를 메꾸고앉아 결국 유세를 포기했지. 그때문에 울상이 된 두 후보는 총학생회장 유세에 함께 하도록 하자, 말자의 시비로 옥신각신하다가 선관위위원장의 중재로 총학생회장 유세후에 어학생만 따로 모아 하기로 결말을 봤었어.

—무관심한 어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선관위측의 인력부족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않았던 것도 사실이야.

—어학생후보들의 공약도 이념과 실제로 대조를 이루었지.

—특기할 일은 총학생회장 선거에 모두11명이 입후보했었는데 그중 한명이 추천인 2백인 기준을 넘지 못한것이 뒤늦게 발각되어 탈퇴된 일이 있어.

—선거운동은 예상보다 비교적 조용했던것 같아. 물론 어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표를 얻으려는 조작이 있었다는 설(說)과 어느 후보는 외부의 유력인사가 선거 자금을 대준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돌았으나 결과에 큰 영향은 없었던것 같아.

—이번 선거는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있어 이채를 띠었지. 모후보는 일간지에 실린 자신의 글을 복사, 배부하기도 했고, 어느 후보는 본보 지상유세때 계엄사보도검열에서 공약의 한부분이 삭제되었는데, 그부분에 물음표(?)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보이는 작전도 폈는걸 보았어.

—동문이나 지연이 선거에는 빠질수 없는 요소인지 영남세와 호남세의 대립, 구 일류고교의 동문세력, 사립고교의 단합등이 실질적인 영향력은없었으나 군소동문을 배경으로 한 입후보자들에겐 암암리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지.

—투표 당일날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지.

—투표 당일인 15일은 무릇 봄이 왔음을 실감케하는 화창한 날씨였어. 후보들이 입렬로 서서 깨끗이 한표를 부탁하느라 동분서주했고, 선거 참모들은 마지막까지 한표라도 더 끌어들이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 한 예로 어느 참모는 교생실습을 나간 학생을 택시로 데려와 투표를 하도록 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도 있어(웃음).

—선관위 측에서는 투표율의 저조를 우려했던것 같아. 만약에 투표율이 50%가 안될 경우엔 간접선거혹은 재선거의 방법으로 선거시행상의 모든 업무를 원점으로 되돌려야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런데 두시 조금직전에 투표율이 50%가 넘자 선관위측은 생기가도는 얼굴이었어.

—의외로 어학생 투표율이 높아 유세때의 우려를 완전히 뒤엎기도 했지. 투표과반수를 채운 어학생은참관인들의 일동기립 박수를 받기도 했고.

아뭏든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날씨탓도 있겠으나역시 외대인의 의식이 방관자의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

—투표가 끝나는시각도 방송측과 진행측의「사인」이맞지않아 잠시 혼선을 빚었으나 곧 정상대로 움직일수 있었지.

—투표함이 봉인되어 개표장으로 옮겨질 때는 정말 삼엄한 분위기였어. 역시「루머」일이 판명되었지만 일부측의 개표장 습격…운운하는말에 선관위측에선 ROTC에 위촉, 삼엄한 경계를 펴는 동시에 여섯대의 소화기를 준비하는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있었지.

—참관인으로 5명의 교수 26명의 학생과 보도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가진행되었지.

—총학생회장에 당선이 거의 확실해진 후보자의 참모진들은 밖에서「축제분위기를 방불케하는 일」을벌어 빈축을 샀으나 곧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지.

—긴장감이 계속되었던 개표장내의 분위기와는 달리 밖에서는 초조감을 달래느라 오히려 떠들석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해.

—개표가 거의 끝날 즈음에서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된 후보의 참모만이 남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12시가 넘어 개표가 끝나자 몇몇 참관인이 당선자 참관인에게 축하인사를 보내는장면도 볼수 있었어.

—당선이 확실해지자 그 후보는『이번 선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새로이 출범하는 총학생회를 위해 전 외대인이 협력해야 할 것』이란 말을해서 듣는이로하여금 흐뭇하게 만들었지.

—오랜기간은 아니었으나 숙원하던 총학생회가 탄생하기까지는 실로 많은 사람들의 고생과 노력이 바탕이 되었던것 같아. 이제 남은일은 모든 외대인이 총학생회의 동반자인 동시에 감시자가 되는 일인것 같군. <정리 이창영기자>

> 숙원하던 총학생회가 탄생하기까지는 실로 많은 사람들의 고생과 노력이 바탕이 되었던것 같아. 이제 남은 일은 모든 외대인이 총학생회의 동반자인 동시에 감시자가 되는 일인것 같군.

## 학원회복의 대명제 앞에서

### 총학생회장 당선에 부쳐

# "「단결」과「의지」를 구심점으로"

우선 전외대인 어려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감사합니다.

학원「자율화」와「민주화」란 어떤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들 모두의 자발적 참여하에서만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73%라는 높은 투표율은 바로 우리 전외대인들이 학원자율화와 민주화를 위한 선행적단계인 총학생회 구성을 크게 인식한 참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읍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들의「단결」과「참여의식」이 끌어나가야 할 제반문제해결의 긍정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대인 어려분!

억압과 모순에서 방황하던 시대는 분명히 지나갔으며 현재 우리에겐 진정한「학원회복」이라는 대명제가 놓여 있읍니다. 지난날의 학원처럼 또다시 순환되는 모순에 빠져서는안되며 그러기 위한 우리자신들의 마음속에 개인의 이익과 안일을 배척해야 합니다.

진리탐구란 순수한 학문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과 정치의 영역은 분명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정치와 학문의 중복된상황이란 순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며 만약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들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투쟁하지않고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20년전 선배들이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분연히 궐기한 것도 진실은 왜곡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배들의 신념이 지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읍니다.

그만큼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왔고 의지없는 유아적 신념에 만족했으며 그 변질된 신념이 곧 우리를 못난 후배로 전락시켜 버리고야 말았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봄은 왔읍니다. 허나 우리를 자신의 내재적 의지와 투쟁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합시다. 그리고 봄을 맞기위한 마음의 자세 또한 활짝 열어둡시다.

상황판단을 직시하기 위한 혜안을 가지고 모든일에 대처할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나갈수 있읍니다. 재단의 비리나 면학을 위한 지도력 보장은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뭉치고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격려할때 이 어려움들은 다 해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외대인 어려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나갑시다. 이러한「단결」과「의지」는 25년동안 흐르고있는 우리 외대의 새로운 맥박이며 그것이 하나의「구심점」으로 작용할때, 분명「외대혼」은 정립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9명의 후보자들의 진지한 선거자세와 뜻깊은 충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선되었다는 의미가「승리」의 의미는 기필코 아닙니다. 이제부터의 우리들의 노력이 하나의 결실을 볼 때 바로 그것이 저와 다른 후보자들과 또 모든 외대인이 다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양심, 정직, 솔직한 자세로 모든 일에 대처할 때에 분명히 결실을 보게될 것이며 그것이 외대혼, 외대문화를 계발하는 하나의 척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외대인 어려분!

어려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힘을 합쳐 새로운 외대의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합시다.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쁨을 나누는 윤용근회장(사진 왼쪽)과 심방국부회장.

◇윤용근 총학생회장 약력 54년 진주생(生), 72년진주고등학교학생회장역임, 73년 진주고등학교졸업, 75년본대학법정학부입학, 75년~78년 군복무, 78년복학, 80년 법정학과 과회장

## 4·15선거를 돌아 본다

# 참여하에 드러난 문제점

6년여의 공백끝에 얻은 학원 자율화의 첫 결실이었다.

지난 15일 치른 본대학 총학생회장및 어학생회장선거는 총 유권자수 4,949명중 3,592명이 투표, 72.6%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인가운데(어학생, 526명중

### 고른득표, 대량사표(死票) 발생

412명, 투표율 78.3%)일단, 본대학 사반세기의 새기틀을 다지는 순조로운 선거였다는 평을내릴수있을것같다. 또한 전외대인 역시 많은 참여로이에호응해 주었다.

비단 본대학 선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선거가 새시대를 맞아, 향후(向後) 대학선거의 초석(礎石)임을 생각 해 볼때 이의 중요성은 새삼 부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체로 공명했다고는 하나 선거과정상 드러난 불미스러웠던 몇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제기되어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하겠다.

먼저, 이번 4·15선거에서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입후보자의난립」이었다. K대학교 같은 경우, 7명의 입후보자를「난립」이라고 말하는것을 보면, 본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총학생회장에 11명이 입후보했다는 사실은 이미등록마감후부터 15일의 선거에 적지 않은 우려를 낳게했던 것이다.

대의적인 이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표가 분산되었을 경우 대량의 사

◇자신이 가진 한표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때 이땅의 민주주의는정도(正道)를 갈수있다. (투표하기 위해 줄을선 학생들)

### 동문 결탁은 음성적 양상 띠어

표(死票) 발생에따르는 선거 후유증과 전체학생의 중지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 나는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불신같은 것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수 없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투표함의 두껑이 열리면서 현현(顯現)되기 시작했다.

윤용근(PA·3) 심방국(C·3)후보가 전체 투표자 3,592명의 16.2%에 해당하는 584표로 당선이 확정된 것을 보면 전기(前記)한 바의 사표의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윤용근 후보를 포함해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몇몇 후보들의 표가 전체의 3분지2선을 넘어간 것을 보면 이번 선거의 치열했던 득표공작의 양상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이처럼 많은 후보가 난립했던 것은 급격히 불어닥친 자율화, 민주화의 바람탓이기도 하지만, 선거의 절대 공명과 효율적 진행을 기하기 위해 취해진선거 공영제와 입후보 자격에 대한 선거시행세칙에서 이에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이 다소 미약했기 때문으로 볼수도 있다.

다음으로 학내외의 선거운동상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일중에는 이미 해체한 특정단체를 비난함과 아울러, 특정입후보자를 의식하고 몇몇 유령단체의 이름으로 공공연히 인신공격을 했던것들을 들수있다. 더구나 이를위하여 공기(公器)인 학내 언론기관의 보도를왜곡, 인용한 유인물이 나돌았던것은 당선에만 급급해서 수단과방법을 대학인다운 지성으로 여과하지못한 그릇된 처사였다. 또한 입후보자중 분교생에게 투표권을 줄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3백명 분교생들의 표를 의식한 속셈이었다는 비난이 일기도했다.

동문간의「연합전선작전」은 과거와 같이 두드러지게 표면화하지 않았지만, 유세일인 9일, 12일, 14일을 전후해서 나붙은 각동문명의의 공고문은 보이지 않는 동문간의 결탁내지는 대립의 양상을 충분히 짐작케 했다.

이밖에 선거관리 업무상 선관위원의 수가 매우 부족했고, 선거 홍보상 기표방법을 주지시키는 활동이 부족해 뜻밖에 비고의성(非故意性) 무효표가 많이 나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에 열거한 문제점들이 시행착오의 반복이어서는 물론 안될 것이며, 민주적 대학사회의 발전을위해서도 선거풍토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신임 학생회장단에 축하를 보내며 허황한 허사나 전시행정식에 흐르지 않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동시에 범외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질책으로 공동선의 실현에 동참(同參)하는 풍토가 가꾸어져야겠다는 바램이다. <최준석기자>

알 림

본보 시리즈물인「대학발전을 위한 우리의문제」는 선거관계기사로 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독자여러분의 성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이문크로니클

### 이열치열의 처방

○…선거의 열기가 온 캠퍼스를 뜨겁게 하면서 온갖 루머와「설(舌)」이 극성스럽게 나돌았는데「클라이맥스」인 투·개표당일에는 급기야 난데없는 방화설(放火說)까지 떠돌아 관계자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

부랴 부랴「선관위」에서는 투·개표소에 소화기까지 비치하는 등 부산을 떨었으나 투·개표는 무사히 진행돼 결국「루머」는「루머」로써종언(終焉)을 고한 셈.

선거열이 너무 뜨겁다보니 아마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처방이 생각난 모양인데, 사실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방화설은 아무래도 지나친 감이 없지않아….

○…지난 11일 첫 유세때 본관 좌측계단 위에서 유세를 주시하던 모 외국인교수『학생들이 자유, 자유 마구 외치지만 그뜻을 정확히 알아서 실천하도록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능숙한 한국어로 뼈있는 한마디.

한바탕 수라장을 겪은 유세장 풍경이 외국인교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궁금하기 이전에 부끄럽게까지 해. 흠 산즈 제위 자성합시다그려….

○…어학생회장 선거의 합동유세장이 파리만 날리는 개점휴업(開店休業) 상태를 지켜본「선관위」측은 어학생들의 투표율이 극히 저조할 것을 우려,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투표당일 오전까지만해도 10%미만에서 맴돌던 투표율이 오후들면서 서서히 상승「무―드」를 타기시작해 정확히 오후 1시56분 이태리어과 K양이 투표율 50%를 채우는 263번째로 투표하자 감격한 선관위원들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자축(自祝)」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선거가 절정으로 치닫던 14일 유세를 들던 크로니클자는 뜻밖의 기묘한 사실을 발견.

열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유세연설은 한결같이「사꾸라(?)」척결을 내세우며 열변을 토했는데, 이 때문인지 유세장인 사회과학관 앞의 초췌한 벚나무 몇그루는 아예 봉우리조차도 내밀지를 않아.

아마도 캠퍼스내의 초목(草木)까지도 유세의 열기에 주눅이 든 때문인듯 한데, 말 못하는 벚꽃나무가 솔선해서「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열전(熱戰) 후의 허탈감으로 적요(寂寥)가 드리워진 이 문벌에 팽팽한 의식의 긴장을 깨우친 한토막 해프닝이 있어.

모 과에서 수업중 학생들이 속강의 지겨움을 견디다 못해「아우성의 농성」을 연출했다고, 이에 교수님께서『왜 교권 침해를 하십니까?』고 일갈(一喝) 하자 숙연한 분위기로 돌아갔다는 것.

모두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각자 날로 택진(驀進)할 따름인데.

『교권침해 마시오!』

대학시절을 허송하면 영어 마스터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5월호

時事英語研究

The U.S. & Russia: The Growth of Mutual Mistrust (相互不信이 深化된 美蘇關係)
The 'Moral Dilemmas' of U.S. Foreign Policy (道德的 딜레마에 빠진 美國의 對外政策)
Europe in the Middle (유럽의 不安한 將來)
How Real Is the Soviet Threat? (蘇聯의 위협—그 事實의 深層的 分析)
'Sweet and Sour' Democracy (中共의 民主化: 門戶를 開放하기 시작한 中共)

特別 새 企劃 英語로 읽는 韓國文學「갈매기」/ The Gulls〈下〉…… 李範宣 原作 / J. Holstein譯

□英語會話(Welcome to English) □TOEFL Test/Word Power 특강 □해외단편(O Youth and Beauty) □취직英作文 강좌/佛語誌上講座 □英文學野史/英語街 散策 □NYT 社說/考試英語 映畫台詞 Sunburn •時事英語카세트에 錄音收錄•

값 1,400원

英語世界

Conversations with Pope John Paul Ⅱ (로마 교황이 말하는 女性問題)
Good Old World War Ⅲ (멋들어진 제3차 세계대전)
The Changing Tools of Education (교육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主要記事 英詩/英小說/Pop Song/Sports 英世法規/人間論/世界의 神話 英世名作劇場/젊은세대에게주는글 英語講座 TIME·Newsweek 英語研究 生活에 응용되는 英語會話 世界有名作家의 名文章研究 映畫台詞 부라디·썬데이

값 1,300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5의3
時事英語社
정기구독 문의처
서울 (269) 6624~5 (265) 0509
부산 (43) 3007 (42) 0163
대구 (45) 8890 대전 (2) 4370
광주 (2) 2376 전주 (2) 3849
수원 (5) 9316 인천 (2) 5143

放送英語 案內

HLKX / 1188 KHz 극동방송 英語會話 시간: 아침 6:40~6:50 교재: New English 900 2권 발송중

HLKP / 1404 KHz 기독교 부산방송 英語會話 시간: 저녁 10:40~10:50 교재: New Horizons in ENGLISH 2권 발송중

교재는 全國 書店에서 發賣中!

時事英語社

時事英語社 발행 大學生을 위한 新刊
전국 유명서점·대학 구내서점에서 발매중! (269) 6621~3 (261) 5258

뉴월드 英作文辭典 값 3,500원 본사이즈版 676面
名作 AFKN드라마 카셋트 값 2,500원 각권 Text 포함
英韓對譯 한국名詩選 Master Poems from Modern Korea 金載玹 編譯 값 3,500원 菊版 300面
大學特講 時事英語 讀本 CURRENT ENGLISH READERS 1 값 3,000원 크라운版 232面
New TOEFL〈카셋트 별도로 있음 3개〉 값 3,000원 (카셋트값 9,000원) 4·6倍版 224面
最新 就職英語問題集 값 3,000원 菊版 308面

# 출판문화의 상황과 자유

김 언 호

우리가 책 또는 출판문화를 논의하려 할 때, 먼저 염두에 두어야할 하나의 전제가 있다. 70년대의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 80년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한권의 책, 책어도 시대적 삶의 논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책이란, 그 책을 내놓은 사회 내지 그 시대상황의 역사적 소산이라는 인식이다.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그 여건과 사투는 지식인들의 의지가 궁극적으로는 한권의 책으로 수렴·반영된다는 논리적 구조를 우선 전제로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진 「물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80년대라는 자못 희망에 찬, 아니 망연히 새로운 역사가기 목되어야 할 연대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비록 피할아보기도 싫은 그런 것이지만 70년대를 다시한번정시(正視)할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일망적이었던 70년대는 그러나 실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또 응으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70년대 우리들의 체험은 이땅의 면비사를 기록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것임에 틀림없다.

책 또는 출판문화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그렇다고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출판문화의 측면에서도 「질량적」이었던 70년대였지만, 그러나 그 질량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희망적」이었던 것이다는 역설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것이다.

의식있는 젊은이들이 대거출판에도 관심을 보였고 필요로 참여했다. 열악 (劣惡) 한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의 논리를 찾는 젊은 목자들이 꾸준히 자라났다. 뜻있는 지성들이 피와 땀으로 써낸 팽팽한 비평들이 규제의눈을 수난을 당해야 했지만, 이런속에서도 재기에 넘치는 패집진 젊과 발랄이들은 아심적인 기획을 꺼냈다. 평단으로부도 이야기하려 했다. 「이념」을 극복하려는 수많은 젊은 목자들은 이들에게 성원을 보냈고이성원은 또 한권의 책에 대한 응기를 불러일으켰다.

70년대 특히 그 중반부터형성되기 시작한 「젊은 출판인들」, 이들이 불러 일으킨 「새바람」은 아홉등 기상의 출판계를리장시키는 「혁명적인 변화」로인식되었다. 편상유지에 안주하던이땅의 출판에의 새로운 가능성이 이들의 「젊음에 의해서가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의 의미와 형등은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와 충돌될 수밖에 없었다. 뜻있는지식인들의 진실에의 탐구작업을 한사코 거부하는 검단내지 세력은 이같은 새바람을 절식했던 것이다.

아들등, 70년대를 살면서 우리는 「상황의 논리」를 확인하게 된다. 인간의 삶의 본질인 자유, 그 자유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도처에 횡행하는 시대에는 그러나 그 삶을 자유롭게 하려는 인간의 당연한 저항이 구체화된다는 것이 바로 지난 70년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70년대의 이러한 체험 내지 「상황의 논리」는 80년대에땅연히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은 때에, 다시말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속에서 형성되는 문화라야 민족문화라고 우리는 말한다.

출판문화는 그 무엇보다 다양함에서 갈어지가 찾아진다. 개성이 있어야 한다. 다원화되어야 한다. 이런 책도 나오고 저런 논리를 주장하는 책도 나와야 한다. 거창한 주제를 걸고 나오는 책만이 좋은 책이라는 주장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성을 주장할때이다. 바부가 많고 금기가 많은 곳에 문화가 발전할 수 없다. 출판문화는 더욱 그러하다.

70년대의 파오는 80년대에서 다시 피를이적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바로 이런책은 안된다, 저런 책이면 좋다는 문화방식의 발상에 냉반하는 권위주의적발상의 청소작업이다. 다양한 논리와 주장이 나와서 그것이 한층 발전된 논리가될 때, 민주주의가 민족문화를 실피는것이며 이는 곧바로 「책」과 연결되어 가능해진다.

출판문화의 제고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출판계자체가 안고 있는 과제가 한둘이 아닐것이고 그것을 부인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뛰어넘어가 아니라 모처럼 형성된 적극적인 측면이 「자유」의 원방침만 받으면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은 그럴게 큰 문제가 피지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질과 양에 있어서 70년대부터 대단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젊은 목자층이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틀림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지만, 「양서는 악서를 구축한다」는 명제를 우리는 믿는다.

70년대의 암울을 벗어던지고 비로그 「10·26」이라는 한 역사적 분계를 넘어서 80년대의 벽두에 서 있는 우리는 「책」에 대한 인식을 다시 확실하게 하려고 마음먹는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독자」의 존재, 「독자」의 의소리와 시선을 만난다. 「소리없는 독자」이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존재가 바로 독자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

따라서, 민족문화를 꽃피우는 작업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출판계는 이같은 독자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것이다. 아무것이나 만들어 선전만 하면 팔린다는 그런 낡은시대의 생각은 철폐의 권위주의체인 문화란 네지 출판관과 함께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의 독자들은 함부로 매할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한길사 대표>

# 양식있는 출판을 촉구한다

이 영 희

「책을 읽을때는 방법에서 하늘같아지 읽어라」는 말이 있듯이, 모름지기 우리가 수용해야할 독서의 태도란 세간에서 부비 고려하기를 거듭적 않고 무부 선별하는 일일 것이다.

보해리카적인책도 우리가 구해보려고 안주조차 넘어 없었던 진귀한 도서와 유명한 석학들의 저술들이 이제는 발길 닿는 서점가의 아무곳에나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 문명이 주는 혜택이란 역시 득시계에도 예외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사실 책이 너무 많다, 아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다, 를 문 이제껏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한면상이겠지만 가득이나 없는 시간에 읽고 싶은 책들은 모조리 타임어보고 싶어하는 욕심많은 만 독자의 입장으로는 너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책을 아껴 나오지 말고 제발 좀은 책들을 소화해낼 시간적 여유를 좀 줘가면서 출판되었으면 좋겠다.

어제나 오늘도 종로나 광화문 거리의 서점가 진열장에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못하던 생경한 이름의 출판사들이 저마다 한두권의 책으로 얼굴을내밀고 있다.

이들은 과연 어떠한 출판양식 (良識) 을 지니고 있을까.

책을 출판해내는 일이 업적 작가의 사고 속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라 할 때 그들은 독자들을 작자의 의식의 광장에 참여만 시킬을 뿐, 독자들을 작가의 의식에 동화시켜준다는 일은 생각조차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농혁에 맞는 책을 골라서 읽고 소화해내는것은 독자들의 할 일이며, 그러나 생각하는 출판사라면, 아니 생각해보려고 노력하는 출판사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독자에대해서 책임을 질줄 아는 출판양식이 필요할 것이다.

책은 인간의 지혜를 살찌우고 풀어져 부유하는 영혼에 알갱을 가져다주는 좋은 영약이다. 그러나 좋은 약도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 권의 책이 인간을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심계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정할 때 책을 만들어내는 출판사의 소임이란 사뜻 중요하다.

지금 도처에 널려 있는 무수한 출판사들중에 일확천금이나 꿈꾸고있는 출판사들은 없을 줄 안다.

책을 쓰는것은 작가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책이 어떠한 모양과 내용의 개성을 가지고 독자들 앞에 얼굴을 내미느냐는 것은 출판사가 할일이다.

출판한 것은 정직한 것이어서 많이 투자하고 많이 공을 들이는 만큼 손수한 모습으로 그 본연의 얼굴을 나타내기마련이다.

작년 봄군데의 출판사가 겨김과 기회를 영입의 사정권으로부터 분리시켜 책다운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익사업중 언론 미디 속에 껴으로는 것이 있다면 교육과 출판이다. 교육은일반대중에게 이미 공익사업으로 깊이 인식되어 있지만 출판은 아직 그렇지가 못한실정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출판인들의 자세가 그릇되어 있다는데 있다.

한마디로 너무 영리적이다. 영리에 어두운 근시안적 안목에서 어떻게 좋은 책이 결집되고 발간되어져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상에 잉크를 만지고 종자에 손을 대었다고 하면 당장의 이익을 계산적 첫 머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만들어 널수 있는가에 전력으로 투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좋은 독자라면 책을 선별해서 볼 줄 알아야한다. 또한 좋은 독자라면 독자군 (讀者群) 을 이루어 독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보호막 형성해야

# 독자의 권익을 위해 독자군(讀者群)으로 자기보호막 형성해야

효막도 형성할를 알아야한다.

책이야 말로 출판사의 일의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죽필요한 책들을 읽어보기 위해서는 독자를 스스로가 자신에게 유용한 책이 발간되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책이 있는 독자들은 생각할 수 없고, 독자 없는 책 또한 있을 수 없다.

하루에도 십수권씩 쏟아져나오는 책, 그 책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고 진실로 살아서 숨쉬는 책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와 출판사간에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과 · 3>

# 출판문화의 개성적인 다원화 필요

## 권위주의적인 정책 배제되어야

# 책 다운 책을 위하여

○ 좋은 책은 출판인의 양심과 독자의 의식고조에서 ○
○ 낭아진다. 그를 위해 출판물의 검열과 통제는 자율적방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라져야한다. 작금의 한국출판 실태와 그 상황을 들여다보며 출판인의 타성과 독자의 무관심을 깨치기 위한 계기삼아 출판인과 독자의 소리를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

# 합리적인 자유의지행사를

김 명 수

역사적으로 보면 선동은 통치상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용해온 정치적 도구였으며, 그 본질은 일정한 관념을 대중에게 납득시켜 그들의 의식·기분에 영합을 주고, 종국적으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유도하려는데서 찾아 볼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현재 우리가 처한 것과 같은 사회적 변혁기에 루더러지게 나타나 사 논해도 가지고 있다고 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 캠퍼스에서도 목격할수 있고 또 앞으로도 갈팔적이긴해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 대학인은 이러한 선동적 활동보다는 합리적 입근에의 해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대학인은 사리판단 능력판단이나아 위중한 자유의지행사에서 동태적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식자 (선동가) 는 선동구호를 조작하여 대중의 심리를 동원하려고 한다. 이러한 선동은 대중의 감정자극에 민감하여 도발성·비분강개·파괴본능을 자아낸다. 이로써 대중은 현재의 상황을 판단이 선행되고 이에 선동이 가해질때 발전을 구가할 수 있다. 선동 그 자체는 비합리적인 면이 강하지만 급격한 환경변동하 누루된 현재 상황을 있는 변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정치외교학과 · 3>

## 상황개선 위한 매개역(役)

10·26사태이루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가 감돌면서 우리의 모토인 민주정치의 큰 목표적 현상으로 소란스러운 발들이 나돌고 있다. 학원내의 사태난화도 예외가 아니란 추리를 증명하기엔 짧도록 많은 장미로운 발들이 메아리치고 있다. 확실히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로 쉬에 들리는데로 타성에 의해 음직이고 있지만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것 같다. 문제에 대한 의식이 하나의 시발점이되고 있다. 바야흐로 정책적 사회

선동 상량마루
다음제목 : 4 · 19
매 수 : 200자 3매
마 감 : 4월23일

강 용

# 봄은 왔는데

## ——병아리 장수의 흰소리

근간에 모 일간지에서 즈사한 설문내용중에서 가장 많을 수 없는 집단이나 제도에 대해 정당, 정치인, 국회, 기업인의 순으로 답이 나온 걸 보았다.

며칠 사이에 고위층 인사의 발화문과 관 의신과의 최연배응의 일부 문구가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의혹을 자아내게 하였다.

작금 일련의 정치형태는 그간에 조심을 보이던 정치발전이라는 명제를 국민 모두가 애는 보탤도 없이 쉽사로 피클리는 못한감을 당시의 신문, 기타 여론의 종합에서 느낄수 있었다.

그렇저 않아도 울산사건이후의, 정치상황이 바탕이된 한국정세의 실추된 대외 신용도의 회복이 급감한 차제에 이런 발언이 그나마 조금 관심을 보이려면 의국 투자가나 기업들의 눈을 어느 쪽으로 를 돌릴지 모를 것인가.

이넥 아들이나 손자증에 누군가는 본명 오늘 아침에도 넘 발언이 혁가장을 들고 마문을 나갔을 때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입시방편식의 희장술책 정치발언만 일삼아 국민과의 불신을 자초하는 눈가림식의 망언을 삼가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어따때학내 진통이 계속되는 등안은 참감하다가 입영문건거부문제가 나오자 영감절에 발표한것같은 14일 최대통령의 특별담화 역시 일련의 사회여론리려 하는지 남폭할수 없다. 사실 그간 학원사태에 위인을 따진다면 사학이 구체제에 편승한 그릇가로 당국의 폭력을 말아안준 속에서 학내 폭재를 하며 치부를 했기 때문인것이다. 이러한 당국의 사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부족분을 제단에 대한 부조리의 공공연한 묵인으로 대처해 주면 바람이, 근간의 불법 사립대의에체능계 심입생 선발자정에서 전원 찍구멍입학이란 당시에는 기사화되지 못한 입청난 결과까지 끌고 오게 하지 않았던가. 당국은 학내분제의 자유화라는 미명하에 오려대 부패를 부채질하는 방관적 태도를취 결하여야 할 것이며 부실사학의 냉폐책결을 위한 나름의 제도적인 보장장치를 마련하는데 고심해야 할것이다.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에 정치인의 사회복귀 논의에 대한 자기분제점의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내는 것 같다. 학원분제의 해결은 대학인 스스로의 자율에 맡긴다면 또 인제인데 이제와서 학원분제를 정치적 차원에 끌어들여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와, 국내지질 사회면에 모자라서 외국 유명일간지에까지 대학의 분제를 사실이상으로 과일확학 발표하는 것은 무슨 어불성설이며 프리부동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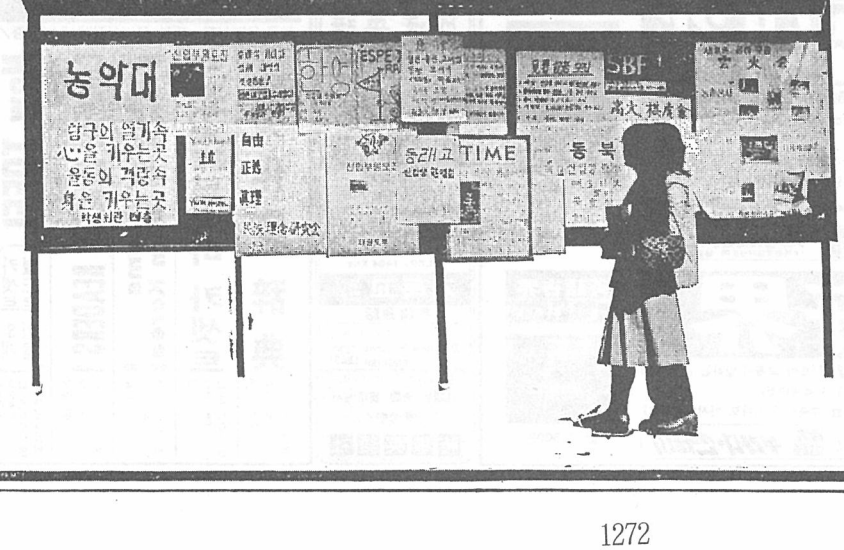
정치인은 소신있게 상황을 목넘게 이해해야 하며 역사와 시대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할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채 행해질 때 남는 것은 일개 정치인의 강화된 자의(恣意)일 뿐이요, 거두는 것은 국민의 통절한 시련과 고통뿐이다.

정치인의 시행 착오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채 행해질때 남는 것은 일개 정치인의 강화된 자의(恣意)일 뿐이요, 거두는 것은 국민의 통절한 시련과 고통뿐이다.

# 이무만평

강전너 불구경


어떤 서클활동이 좋을까?

—보람된 젊은날을 위하여—

중요하고 알찬 대학생활을 위해 서클활동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강의실과 도서관이 전리탐구의 도장이듯,
서클 활동은 인격형성의 도장이기 때문입니다.

적성에 맞는 알기찬 서클활동을 통해 친구를 알고,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젊은 지성인의 특권 입니다.

鮮京은 다양한 서클안내문으로 가득찬 게시판 에서 순수한 젊음과 밝은 미래를 보고 있읍니다.

SK 鮮京